朝鮮之光 - 1928. 04. 01/

唯心論에 對한 一考察3

엘니옷트

吾人은 이제 科學的 唯物論의 哲學을 說明하는 最後의 階段에 到達하엿다. 天文學者나 物理學者의 取扱한 題材 內에는「心靈」을 容納할 만한 餘地가 업다. 生物學도 또한 純然한 唯物論의 基礎에서(立)잇다. 生理學에서도 生理 作用에 心靈的의 干涉이 行하여 지는 것 가치 想像하돈 活力設은 完□가 업도록 打破되엿다. 그래서 只今에는 實際上으로는 모든 生理學者가 此를放棄하고 大多數의 生理學者는 理論上으로도 此를 抛棄해 버렷다. 그래서 吾人은 조튼지 실튼지 모든 種類의 事象의 因果 關係는 純然한 唯物論的인 關係라는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吾人은 吾人의 硏究하는 道 上에서 조곰도 物質的 性質과 對立한 精神的 性質을 가진 如何한 種類의 因果 關係에도 衝突되지 안는다. 人間의 心이라는 가장 微妙한 가장 複雜한 作用에 至하기까지 宇宙는 物質의 物理的法則에 衣하야 支配되는 것이다.

그러면 吾人은 唯物論은 唯一의 眞實한 哲學이라고 推論할 것인가. 如斯한 推論은 以上에 考察한 證據에 衣하야는 立證되지 안는다. 現在에 處한 바 吾人이 當然하게 推論의 權利를 가지고 잇슬 것은 唯物論은 自然科學의 基礎라 하는 一事에 止하여 잇다. 科學은 必然으로 唯物論을 根底로하는 것이다. 化學이 原子說위에 서 잇는 것과 가치 科學은 唯物論 위에 서 잇다. 그러나 化學者는 오랫동안 原子說로써 단히 便宜上, 實際上의 假定設로 見做하고 그것이 絶代의 眞理라는 信仰에 陷入하지 안엇섯든 것과 가치 마치 그와 가치 吾人은 只今 唯物論이 果然 絶對의 眞理인지 엇덜는지 하는 問題는 考究치 안코서 便宜上 —그럿타 다만 便宜上— 實際上의 假定設로서 承認할 處地에 잇다. 唯物論은 絶對的眞理인지 엇덜는지 하는 問題는, 果然 解決이 될는지 어덜는지. 만일 解決이 된다 하면 엇던 解決을 줄 수 잇슬가. 이것이 只今부터 考究할 題目이다. 世間 普通의 敎育은 受한 成人의 不用意한 所謂 常識的의 見解로서는 心이라 物質이란 名稱은 全然性質을 相異히 한 二 個의 存在

가 잇는 것 갓치 생각된다. 그 結果로서「하—바—트·스펜사」〔스펜스〕와 갓흔 所謂 常識 哲學者는 心과 物質과의 間의 相異는 적어도 吾人에게 意識의 可能한 如何한 것의 相異보다도 一層大한 相異라고 云하엿섯다. 그런데 누구든지 哲學의 硏究는 如斯히 二元論者로서 出發한다. 그래서 哲學上의 만흔 問題는 이 假想된 二 個의 存在物間의 相互 關係에서 起來하는 것이다.

그러나 吾人은 何故로 如斯히 成人의 先入한 印象에서 出發하지 안으며 안 될 것인가. 如斯히 成人의 先入한 印象에서 出發하게 되면 吾人은 哲學의 硏究의 맨 가온데로 飛入하게 된다. 그래서 吾人은 임의 硏究의 主題에 對하야 二元的인 結論을 携來하게되는 것이다. 如斯한 結論은 설영 그것이 正當한 結論이라 하더래도 그것은 最後에 到達할 것으로서 哲學的 硏究의 出發点에 잇슬 것은 안이다. 그래서 나는 敎育을 受한 成人의 經驗으로부터는 안이고 할 수 잇는 대로 갓으로 誕生할 乳兒의 경험으로부터 此 硏究를 始하야 거긔서 漸次로 버덤 到達한 成人의 견해에 밟어가랴고 생각한다.

吾人은 爲先 첫재로 乳兒의 經驗은 二元論의 學說을 出生하는 것과 가흔 것은 안이라 一元論의 學說을 出生하는 것과 갓흔 것이라는 것을 看破한다. 乳兒는 全然 相異한 二 個의 타입의 經驗을 하는 것은 안이다. 다만 一 個의 타입의 經驗을 한다. 그래서 이 한 개의 타입의 經驗은 여러 가지 相異한 强度와 種類와의 感覺의 連續이라는 形象 을取하는 것이다. 乳兒는 物質이라든지 距離라든가의 本能的의 知識을 가질 수는 업다. 乳兒가 眼으로부터 受하는 印象은 다만 色과 陰이 雜然하게 混入한 印象에 不過하다. 成人에게 테—불의 槪念을 與하는 바의 視覺은 乳兒에게는 다만 여러 가지의「밝음」과「어둠」으로 된 色의 集合에 不過한 것으로서 그것은 조곰도 一致라거나 堅固라거나 距離라거나 乃至는 其他의 如何한 物質的 屬性의 觀念을 與하는 것은 안이다.

觸角도 同一하게 다만 孤立한 感覺의 連續에 不外하다. 바눌 끗으로 살짝 찌르면 그것은 다만 感覺을 일으키는 것 뿐으로, 全然 外界라는 생각도 惹起하지 안코 또한 物質의 觀念과도 結合되지 안코 何等의 方法으로던지 認識되지는 안는다. 單히 無意味한 感覺에 不過한 것이다.

感動으로 하더라도 同一한 種類에 屬하여 잇다. 그것은 다만 感覺의 連屬에 對한 單位에 不過한 것으로서 或 是로는 非常히 强烈하다는 點이 相異한 것 뿐으로서 何等의 意味도 업는 것이다. 그 위에 乳兒는 全然 外的의 世界를 아지 못하는 것과 갓치 自己 自身의 몸에 對하여도 全혀 알 바가 업다. 要컨대 乳兒의 經驗은 모든 心理的 性質의 것이다. 乳兒는 全然 物質을 아지 못한다. 그래서 萬若 乳兒에게 哲學上의 學說을 세울 힘이 具備하여 잇스면

決코 宇宙를 心과 物質과로 區別치 안흘 것이다. 그래서 乳兒는 다만 一種類의 存在 ―成人이 心理的이라 命名하는 바 의存在―를 認識할 것 뿐이겟다.

吾人의 考究의 第 二步는 如何히 하야 物質의 槪念이 처음으로 생겻는가를 見定할 것이다. 幸히 此 問題에 就하야는 事實은 엔가니 明白하다.

感覺은 未久에 獨立한 單位는 안이고서 互相聯合 되어 온다. 엇던 特殊한 視覺은 間或 엇든 特殊한 觸覺을 伴한다. 例하면 茶色의 視覺은 堅固, 抵抗, 平滑 等이란 觸覺上 筋肉上의 感覺과 結着한다. 同時에 모든 觸覺은 普遍的으로 視覺과 結着한다. 그래서 例하면 刺痛과 갓흔 特殊한 觸覺的의 感覺은 銳利한 尖端과 갓흔 特殊한 視覺과 結着하엿다. 要컨대 雜然하게 聯絡이 없는 感覺 中에서 一定한 秩序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是等의 感覺은 벌서 함부로 나타나서는 消滅되는 全然 流動的인 것은 아니라, 점점 凝結하기 始作한다. 또한 엇더 한 個의 感覺이 意識에 達한 즉 그것은 엔간이 正確하게 다른 感覺을 致할 前兆로 되어 오는 것이다. 如斯히 하야 感覺 은結合 又는 聯合하야 幾個의 部類를 짓고, 이 구루―푸〔그룹〕는 時를 經함에 싸러서 크게 되는 것이다. 엇더 한 개의 感覺은 발서 다른 한 個의 感覺을 暗示할 뿐안이라, 다른 幾個의 感覺도 暗示한다. 是等의 조고만 感覺의 聯合 구루―푸는 情勢上 最初에는 原始的인 感覺의 太洋 中에 浮한 섬(島)과 갓햇슬 것이다. 그래서 勿論 是等의 섬은 조곰만치도 言語를 發할 힘이 없는 훨신 以前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것이 未久에 成人이 「物質」이라 일홈하는 것의 根底가 된다. 物質의 槪念은 엇던 色의 感覺과 抵抗의 感覺과의 聯合에서 起한 것이라 想像할 수가 잇다. 그래서 未久에 그 다른 感覺이 此에 附加하여 온다. 그래서 그 구루푸―를 形成하는 個々의 感覺이야말노 成人이「物質의 性質」이라 名稱하는 것이다.

是等의 性質 속의 한 가지는 空間을 占有한다는 性質이나 此는 決코 極히 最初에 現하는 것은 안이다. 乳兒 는物의 距離를 計算할 수는 도모지 업다. 그래서 바로 압헤 잇는 物件을 잡는데도 견양을 틀니게 한다. 遠方에 在한 物件은 全然 분별을 못한다. 生後 數個月의 兒孩라도 손을 펴서 달을 잡으랴고 한다. 此는 距離의 觀念을 生하는 感覺의 구루―푸는 얼마나 複雜한 싸닭이다. 即 爲先 第一노는 對象 그것, 그것의「明」과「除」, 그 色의 鮮明과 不鮮明이다. 第二로는 光輔의 一定한 度合의 輻合에 伴하는 感覺이 잇다. 그리고 第三으로는 眼球의 凸度의 調節을 司한 筋肉의 收縮에 伴하는 特殊感覺이 잇다. 또한 그 밧게도 그만콤 重要하지 만은 幾個의 感覺이엇다.(註一)그래서 距離의 觀念 乃至는 體積의 觀念이 되는데는 모든 是等의 感覺이 一方으로는 相互로聯 合하고 他方으로는 그의 對象에 達하기 爲하야 要하는

筋肉의 努力의 感覺과 結合하지 안으면 안된다. 成人의 境遇에는 例하면 繪畵와 갓흔 扁平한 것을 體積의 觀念을 構成하여 잇는 感覺의 一個를 人爲的으로 與하는데 衣하야 立體로 보힐 수가 잇는 것이다. 雙眼寫眞鏡은 그 一例이다. 如斯히 乳兒의 心的生活에 對 한最初의 出來事는 그것까지는 孤立하여 잇든 若干의 意識의 要素가 구루—푸에 結合하는 것이다. 그래서 感覺의 바다는 발서 只今까지와 갓치 全然 流動的이 안이라 凝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感覺은 발서 마음대로 함부로 廻動하야 混亂狀態를 呈하지 안코 만흔 感覺은 凝集하고 固定하야 物質이라는 認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註一)空間과 物質과의 知覺에 眼의 筋肉의 調節이 非當히 重大하다는 것은 十二의 頭蓋神經의 속에 적어도 三 個까지가 眼球를 움지기는 機能을 가추워 잇는 事實에 對하야 生物學上의 說明을 暗示하는 것이다. 知識이 增加함에 伴하야 感覺의 조고만 썰기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物質의 새로운 性質이 發見된다. 그래서 吾人은 逐年 物理學者의 知識에 到着한다. 物理學者의 物質의 槪念은 乳兒의 생각하고 잇는것 보담은 無限히 만흔 性質이 結合한 것이다. 物質은 乳兒의 心에는 아마 最初는 色과 抵抗과의 두 個의 性質 밧게가지 안은 것이다. 即 二 個의 感覺이 緩慢히 結合한 것이다. 그런데 物理學者의 心에 映한 物質의 性質은 無數하다. 그것은 如何한 顯微鏡으로 보더래도 더욱 一千倍나 적은 分子나 原子로 分割되여 잇다. 그래서 이 分子나 原字는 다시 또 더 적은 微子으로 分割되여 잇다.

如斯히 物理學者의 心中에서 物質이란 名 稱下에 結合되여 잇는 感覺 乃至는 可能的인 感覺은 非當히 多數에 至하고 그의 發達의 出發點으로 된 乳兒 時代의 起原의 面影도 업는 것이다.

如斯히 吾人의 物質이 槪念이 出來한 經路를 생각해 보면 엇던點 까지는 哲學的 唯心論에 道理가 잇다 할 것이다. 唯心論은 成人의 知識과 經驗과는 모든 純粹한 心理的의 것으로서 그것은 乳兒의 境遇에 疑心업는 事實인 것과 갓흔 것이다 物質에 就하야의 知識은 乳兒의 知識과 갓치 感覺의 印象과 거긔서 抽出된 知識과 推論과에 依하야서만 으들 수 잇는 것이다. 成人이라 하더래도 影響을 與하는 印象의 分量과 種類와에 對하야는 乳兒時代와의 間에 큰 變化는 업다. 成人의 버덤 進步한 神經組織은 버덤만은 種類의 色을 見케 하고 버덤만흔 種類의 音을 聽케 하고 又는 버덤만흔 種類의 觸覺上의 印象을 感할 수 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精神上의 組織의 進步에 至하여서는 單히 意識의 單位 數가 增加한 것 만은 도저히 比較할 수 업슬 만큼 큰 것이다. 이것은 意識의 單位가 발서 百色 眼鏡的인 그째만인 것이안이라 只今은 各各 意味 잇는 것이라고 하는 事實에 의한 것이다. 엇던 特殊한 一組

의 視覺은 只今은 테—불이 잇다는 知識을 生할 수 잇는 것이다. 是等의 感覺은 乳兒의 境遇와 갓치 아모것도 말하지 못하는 單純한 色의 感覺만은 안이다. 그것은 物質의 한 部分을 暗示하고 一定한 距離 一定하게 큰 것 形象, 用途, 堅固, 其他 無數한 性質을 暗示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풀니기 前과 풀닌 뒤와의 知慧環 갓흔 것이다. 풀니기 前에는 個個의 斷篇은 아주 無意味한 아모것도 안이나 한번 풀(解)닌 뒤에는 同一한 斷片이 特殊한 方法으로 結合되어서 眞正한 意味를 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萬若 吾人이 唯心論을 取한다하게 되면 그 唯心論은 一般에게 理解 되어 잇는 唯心論이라는 것과는 非當히 相異한 唯心論이다. 前에도 述한 바와 갓치 普通의 成人은 心과 物質이라는 根本的으로 다른 二 個의 實在라는 깁흔 선 入見으로써 此 問題에 臨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래서 勿論 唯心論이라고 하면 情勢上 物質의 存在를 否定하는 意義, 又는 物質로써 單純한 想像의 所産으로 見做하던지 或은 物質에 對한 精神의 優□을 主張하는 意義로 理解하는 것이다. 그러나 是等은 全혀 이 問題 全體를 아주 誤解한 바에서 生起는 空談에 不過한 것이다. 내가 述한 意味로서는 唯心論은 物質의 存在 乃至는 物質의 實在를 否定하는 것이 안이라 그것은 다만 意識에 나타난 物質이란 무엇인가를 述한 것이다. 그것은 物質의 엇던 한 개의 部分을 한 개의 聯合한 感覺의 核心이라 定義한다. 그래서 是等의 聯合한 感學은 그 泉源이고 貯藏庫인 聯合되지 안은 個々의 感覺과 同一할 만콤 現實인 것이다. 그러치만 一一知 半解의 先生은 이러케 答한다—物은 全然 그것과는 다른 것이 안이라 感覺은 우리 속에 잇다 그런데 物質은 우리의 外部에 잇다. 그래서 物質은 그것이 □起한 感覺이 消滅한 뒤에도 依然히 存續한다 고. 이것은 無益한 批判이기는 하나 尙且 吾人은 如斯한 批評을 試驗하기를 □하기 어려울 것을 承認한다. 그래서 如斯한 批評에 答할 困難은 다만 알기 쉬운 說明을 할 수 업다는 困難에 不外하다. 그래서 이것은 두리건대 續者, 諸君 中에는 일의 짐작 할 분도 잇을 것이다. 어던 批評에 答하기 爲하야는 나는 物質과 精神의 二元이라는 샤리 깁피 박힌 先 入見 一全生涯를 通하야 吾人을 惱殺하여 잇는 先入見, 그리고 哲學者가 쓰지 안으면 안 될 言語, 그것을 刑措하온도 先 入見—과 鬪爭하지 안으면 안되겟다. 이 問題 그것에는 何等의 困難도업다 그러치만 吾人의 使用할 수 잇는 것의 모든 言語가 吾人의 말하고저하지 안는 意味를 含蓄하여 잇는 터임으로 알기 쉬운 說明을 하고 吾人이 말코저 하는 眞實한 意味를 傳하기는 거의 到達하기 어려운 困難이 잇다.(註一)

(註一)이와 갓치 우일리암 쎔쓰〔월리엄 제임스〕도 그의 徹底經驗論에

對하야 이러케 말하엿다. 그것은 當識으로도 또한 吾人의 哲學上의 用語를 만든 唯心論으로도 非當히 만흔 다른點이 잇기 짜문에 이것을 明白히 說明하기는 此를明白히 考出하는 것과 거의 同一할 만콤 困難하다.

그래서 再次 내 압헤 提出된 批評으로 도라 가겟스나 物質은 吾人의 外에 在하야 永久的이고 感覺은 吾人의 內에 在하아 一時的이다. 그래서 엇지하야 이 두 個의 것이 同一할 수 잇슬 것일까. 나는 此에 答하기 위하야 그 內라든가 外라든가는, 抑亦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質問한다. 內라든가 外라든가도 要컨대 其他의 모든 感覺과 同一한 種類의 感覺에 不外하다. 나는 距離의 觀念을 形成하는 感覺 속에서 二三을 擧하야 說明한 바 外部라는 觀念을 形成하는 感覺도 갓흔 性質의 感覺이다. 內部라는 觀念은 그것과는 또한 別다른 타입의 感覺에서 成立한 것이다. 物質이 한 덩어리의 感覺인 것과 가치 마치 그와 갓치 特히 吾人의 外部에 在하다고 見做하는 物質도 同一하게 此를 構成하는 若干의 感覺으로부터 成한 同一한 덩어리다.

그래서 唯心論者는 그럿타면 君은 物質이 吾人의 外部에 잇다는 것은 한 個의 幻想으로서 그것은 實際에서는 吾人의 內部에 在하다고 主張하는가 하고, 드리댄다. 엇더케 決코 그러케는 主張하지 안는다 웨그러냐 하면 內部에 在하다는 觀念은 外部에 在하다는 觀念과 갓치 한 個의 感覺인 까닭이다. 感覺을 意識의 單位로서만 取扱하여 잇는 첫재의 根底에까지 파드러가 보면 거긔에는「外」라든가 「內」라든가 하는 것 갓흔 것은 업다. 外라든가 內라든가 하는 것 부터가 其他의 것과 갓흔 感覺이다. 그래서 萬一 視力의 調節 其他의 感覺이 聯合 한 덩어리로 보태 오면, 吾人은 이 對象을 가리처서 吾人의 外部에 잇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視力의 調節 其他의 感覺이 더 加하지 안코 다른 엇던 感覺이 加하게 되게 되면 吾人은 此의 經驗을 指하야 吾人의 內部에 在하다고 한다. 要컨대 空間 其他의 性質을 備한 物質은 感覺의 구루—푸로 分析할 수가 잇다. 그래서 是等의 感覺은 幼兒의 境遇에는 各各 孤立한 無秩序의 것이다. 成人에 잇서서는 緊密한 구루—푸로 結合하여 잇는 것이다.

그래서 多年間 形面上學者를 惱殺해온 問題가 大槪는 無用無益한 것이엇든 것이 알녀 젓다. 爲先 第一로 實體와 現象과의 區別이엇다. 即 吾人에게 보(見)인다는 것은 別物인 바의「그것自體」로 存在한 物이란 混亂한 觀念이엇다 그러치만 먼저 내가 槪說한 것과 갓흔 唯心的 一元論에서 보면 모든 物件은 分解하면 結局은 感覺이라는 것으로 歸着한다. 짜러서 物質의「背後」에는 무엇이 잇는가 잇지 안은 가하는 問題에는 何等의 意味도 업다 物質은 단히 感覺의 한덩어리에 不過하다. 그래서 잇슬만한 質問은 感覺의 背

後에는 무엇이 잇는가 하는 疑問이다. 그러나 이 質問은 無益하다. 無益할 뿐만 아니라. 無意味한 것이다. 웨그러냐 하면 感覺은 一切의 知識의 始初요 乃終인 까닭이다. 무슨 다른 것이 그 背後에 이서서 或은 그것을 惹起 식히는 것이라는 觀念 그것이 발서 또 한 個의 感覺에 不過한 것인 까닭이다. 感覺이야말노 吾人이 力爭하지 안으면 안되는 唯一한 實在로서 그의 背後에 버덤 實在的인 것이 잇는가 하고 뭇는 것은 그것은 마치「가나다」의 밧게 버덤 가나다的인 무엇이 잇는가 하고 뭇는 것과 갓흔 不合理이다. 그래서感覺은 實在的이다. 實在的이란 말이 吾人에게 對하야 가질 수 잇는 唯一한 意味에서 感覺은 實在的이다. 感覺이 實在的임으로 物質도 또한 實在的이다. 내가 이 조희(紙)을 노코 글씨 쓰고 잇는 堅固한 테—불은 내가 緊張과 注意로써 쓰고 잇는 感覺의 實在的인 것과 갓치 同一한 實在的이다.

그래서 오히려 幾多의 問題가 나타낫스나 是等의 問題는 엇던 것이든지 上述한 理論에 비최서 取扱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래서 是等의 問題속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心과 物質과를 二元으로 假想하게 된 起源을 探求하는 것 心과 腦髓와의 關係 人格의 觀念 唯我論 그 다음으로 最後에 唯物論의 證明과 그의 科學과 知識의 進步와의 取한 바의 意義이다. 나는 爲先 人格의 觀念부터 論하겟다. 唯心論에 대하야 普通으로 特出되는 批評은 吾人으로 하야금 唯我論의 意義—나 即 내가 唯一의 眞實한 存在로서 其他의人格은 單히 想像의 지어낸 것이라는 信仰—에 陷入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批評家는 이리케 말한다—君은 모든 物質 싸라서 人間도 또한 君의 感覺의 聯合이 여러 가지 □式에 不過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物質은 君과 君의 感覺과 同一한 種類의 實在的인 存在를 有치 안는 것이라고 한 것에 歸着한다. 이 批評家는 唯心論에 對한 其他의 批評과 갓치 攻擊하고 잇는 敎義의 誤解에 基한 것이다. 그래서 이 誤解는 右의 批評의 境遇에는 맷번이고 返復되는 것이다. 爲先 第一노 나 乃至로는 我라는 觀念은 汝 又는 其他의 人格觀念과 同樣으로 掩論에 依하야 生한 것으로 나의 正義한 唯心論에는 沒交涉한 것이다. 멧번 이라도 거듭 말하지만 吾人은 孤立한 感覺을 唯一한 材料로 認하고 그래서 是等의 孤立한 感覺의 聯合으로써 그 위에 이러날 무엇은 唯一의 變化로 인하는 바에 이 議論의 出發 點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是等의 感覺은 여긔 저긔서 凝結하여서 物質的 物노 된다. 그래서 是等의 感覺의 덩어리 속에는 男과 女를 代表 하는 것 乃至는 男女라 일홈되는 것이 만히 잇다. 그래서 그 中에 特히 分岐한 聯合을 名稱하야서 나라고 부른는 것이다. 그래서 他 人格의 眞實한 存在를 信하는 根據는 吾人 自身의 人格에 眞實한 存在를 信하는 根據와 動熱 同格의 것이다. 그래서 發達의 道程에 시

는 他의 人格이라는 信仰 乃至는 知識의 편이 實際로 速히 生起하는 것으로서 幼兒는 自己 自身을 一人格으로서 알기 前에 母親을 一人格으로서 知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차 그 뒤에야 幼兒는 비로소 自己 自身을 客觀的으로 보게 되고 「나」라고 부르지 안코 일홈을 부른다. 그래서 自己의 발 갓흔데에다 비스겟트를 주는것 갓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批評家는 오히려 異議를 提出한다 ―果然 君은 나의 存在의 眞實性을 君 自身의 存在의 眞實性 以下로 본다는 難關은 빠저 나왓다. 君은 나를 君의 感覺으로는 見做치 안는 것을 설명하엿다. 그러치만 依然히 君은 나를 感覺으로 見做하고 잇다. 君이 死하게 되면 그 感覺은 消滅한다. 그럿타면 君의 死와 함께 나도 存在하지 안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겟느냐고.

特히 이런 境遇의 誤解는「存在한다」한다는 말의 意味에 걸녀잇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의 意味를 내가 말하는 唯心論的의 用語를 限定하겟다. 여긔에 엇던 物質的의 物이 잇다고 하자. 그래서 感覺의 連續關係 中에는 이 特殊한 구루―푸는 발서 經驗되지 안는다. 그러치만 이것은 아즉 그 物質의 終局인 것은 아니다. 일즉이 내가 게―쓰싸운〔케이프타운〕에 잇서서부터는 만은 歲月을 經歷하엿다. 그래서 내가 쎄―쓰 싸운이다. 일홈 지은 殊殊한 感覺의 덩어리는 現在로서는 結코 나의 感覺의 連續 關係속으로 드러가지는 안는다. 그래서 나는 쎄―쓰 싸운은 벌서 存在하지 안타고 推論할 것인가 엇더케 그러치는 안타. 假使現在는 쎄―쓰 싸운이란 特殊한 感覺이 生기지 안는다 하더래도 是等의 感覺은 다른 感覺과 結合하야 그 뒤에 對한 感覺의 連續 關係를해서 是等의 感覺을 反覆케 하는 듯한 方向으로 향하는 것이다는 確信에 導하는것이다. 此이 反하야 燃失한 物件의 境遇에는 설영 同一한 感覺의 連續 關係는 今後에도 並發한다더래도 이 特殊한 덩어리는 벌서 그의 一部를 成하고 잇지 안을 것을 感覺의 聯合이 示하는 것아 그래서 存在라는 것은 意識의 本源的의材料임은 아니라 感覺의 問에 成立하여 잇는 聯合의 엇던 一定한 타입에 與한 名稱이다 그러면 批評家의 質問에 도라오겟다. ―君은 나를 感覺의 덩어리라 고定議한다. 君이 死하게 되면 그 感覺도 消滅한다. 그래서 나도 또한存在을 하지 안을 것인가?

答은 否定的이다. 내가 倫敦〔런던〕에 잇슬 때에 쎄―쓰싸운이 存在하지 안치 안은 以上에는 내가 죽더래도 君은 存在하지 안치는 안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이 感覺의 흐름(流)이 흘러 넘어지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君이라는 感覺의 聯合한 덩어리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若엇던 奇蹟으로 感覺의 흐름이 다시 흐르게 되고 그래서 그 흐름이 그 方向에 向하야 잇다면 반드시 再次나의 經驗속으로 드러 올 수 잇는 것이란 것을 나에게 確信케 할 만

한 感覺의聯合인 것이다. 眞實한 存在라는 問題는 感覺의 흐름이 이 方向으로흐를가 저 方向으로 흐를가 하는 것에 걸너 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萬若 그것이 正當한 方向으로 흘너 간다면, 그 덩어리를 經驗 하겟지 하는 것에 걸너 잇다. 그래서 萬若 내가 죽는다면 나의 感覺의 흐름은 벌서 君의 方向으르는 흐르지 안을 것이다. ―아니 엇더한 方向으로던지 흐르지 안을 것이다. ―그러나 萬一 그것이 君의 方向으로 흘느게 되면 再次 君을 認識함에 相違가업슬 것이다. 그러나 아즉도 批評家는 不評이다. 君은 나는 感覺이라고 한다. 君은 또한 感覺은 消滅한다 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나는 依然히 存在한다. 엇더케 그것이 可能할 것이냐 나는 거듭「存在」라는 말의 意味에 注意를 促하지 안으면 안되겟다. 存在란 것은 엇더한 個의 덩어리를 構成하는 感覺間의 關係. 乃至는 感覺의 聯合이엇든 一定한 타입에 不過하다. 그래서 내가이 物件이 存在한다든가 乃至는 君이 存在한다던가 하 는境遇에는 이 存在 햇다는 意味는 그 物件을 構成하여 잇는 바의 感覺의 구루―푸 乃至는 君을 構成하여 잇는 바의 구루―푸가, 吾人의 存在의 觀念이라 名稱하는 엇던一定한 感覺과, 結合하여 엇다는 것을 意味하여 잇는 것이다. 그래서 萬若 그物件이 存在하지 안케 되면 此를 構成하여 잇는 感覺은 存在의 觀念에서 分離한다. 即 聯合에 한 個의 解解가 行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單히 그 物件이발서 吾人의 意識에 現하지 안엇다는 것 쑨은 아니다. 웨그러냐 하면 벌서 吾人의 意識에 現치 안엇다는 것은 前에도 말한 바와 갓치 만흔 存在해 잇는 것의 特質인 까닭이다. 그것은 그 物件의 存在의 觀念 과結着하야 出來해잇는 程程의 聯合이 解體하고 非存在 又는 破壞라는 觀念의 사이에 새로운聯合이 形造된 것을 意味해 잇는 것이다. 君은 이제 나의 意識의 흐름이 消滅한 째에는 批評家된 君이 存在하지 안는가 하고 質問하는 바이나 나의 答은 君은 存在하지 안치 안는다는 것이다. 웨그러냐 하면 君을 感覺의 連續 關係에 保存한 聯合에는 何等의 解體도 行해 지지 안는 까닭이다. 「君의 存在」라는 것은 이 感覺의 連續 關係 中에 잇는 엇던 一組의 關係를 가라친 말로서 萬若 君이 死하게 되면 이 關係는 變化한다. 싸라서 君은 벌서 存在해 잇는 것 만으로서는 見做되지 안는다. 그러치만 萬一 君이 生存하여 잇으면 설영 意識은 君의 方向으로 달니(走)지 안터래도 아니 意識은 急히 消滅한다 할지라도 關係는 依然히 存續하는 것이다.(續)